

# 사랑하는 딸 상민에게...

〈편집실〉

**상** 민아.  
 젖을 물고 잠이 든 너의 모습을 보  
 ——— 니 이 엄마는 한없이 고맙고 또한 행복  
 하다. 돌이 갓 지난 네게 아직도 젖을 주냐며 사람  
 들은 어서 젖을 떼라는데 엄마는 네게 오래오래  
 젖을 먹이고 싶다. 작년 이맘때 네게 젖을 먹이는  
 게 이 엄마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이지.

작년 4월,

예정일을 두 달이나 남겨두고 진통과 함께 양  
 수가 터졌지. 너무나 갑작스런 상황에 산부인과를  
 찾았지만 아기를 살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하  
 늘이 무너지는 듯했다.

설상가상으로, 아이를 당장 낳아야 하는데 신  
 생아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. 이 엄마  
 는 미칠 것만 같았다. 아직도 너는 엄마 뱃속에서  
 발길질을 하는데, 네 심장도 뜨겁게 뛰고 있는  
 데... 아빠와 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 
 하고 싶었다.

시간마저 거꾸로 돌리고 싶었다. 그 길로 우린  
 서울로 향했다. 그곳에 가면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 
 이라고 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 
 서...

서울로 올라간 엄만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 
 초음파, 피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. 양수  
 파열로 감염이 되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하니 그  
 전에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

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단 한번도 머릿속으로  
 너를 포기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. 오로지 너를  
 만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네게 참으로 미안한  
 생각 뿐이었다.

입원 이틀째 오후 12시 30분경 2.09kg의 여  
 아를 출산했다. 두 번 정도 으앙으앙 울더니 이내  
 울음을 멈춘 너. 바빠 움직이는 의사 선생님은 내  
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급히 너를 신생아 중환자실  
 로 옮겼다.

분만대위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는 나를 뒤로  
 한 채 너는 그렇게 나와 떨어졌지. 폐의 미성숙으  
 로 중환자실과 인큐베이터를 오가며 넌 힘겨운 나  
 날을 보냈지.

살수 있을까? 아니야. 아무 이상없이 꼭 살까  
 야. 그럴꺼야. 복받쳐 오는 설움과 너에 대한 그리  
 움, 엄마, 아빠 모두 잠조차 이룰수 없었지.

너를 낳은 지 이틀이 지난 후 난 네 모습을 보  
 았지.

산소호흡기, 배꼽에 길게 늘어진 주사바늘, 여  
 기저기 꽃힌 주사바늘과 하얀 테이프에 비해 너무  
 나 작은 너의 모습. 참으로 안타까웠지.

언제 퇴원시켜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엄마 아  
 빠는 기도만 할뿐 네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것  
 이 없었다. 너를 꼭 살려 품에 안아보겠다는 생각  
 으로 하루하루 지켜보았지만 너의 늦어지는 퇴원  
 으로 엄마, 아빠 그리고 너의 오빠는 순천으로 내  
 려왔지. 너를 남겨둔채...

너를 출산하고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어루만  
 지며 이 엄마는 또 울었지.

이 젖을 먹일 수 있을까? 제발 살아서, 살아서  
 엄마가 주는 이 젖을 먹어다오.

젖 몸살로 가슴은 더욱 아파오고 젖을 짜며 아  
 품을 달랬지만 너무나 아까워서 차마 버릴 수가  
 없었다.

그래서 아쿠르트 빈병을 깨끗이 씻어 한 병씩 한 병씩 젖을 짜서 담기로 했다.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고 랩과 유리테잎으로 입구를 꼭 봉해 냉동실에 넣어두었다. 네게 초유를 꼭 먹이고 싶은 엄마의 욕심에...

하루 이틀 너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혹 젖이 떨어지면 어쩌나 엄마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. 주위에선 젖을 짜내어 모아두는 나를 보고 안타까웠는지 한마디씩 했다. “아기가 힘이 없어 젖을 못 빨거야. 괜한 고생하지 말고 우유 먹여. 애기가 안 빨면 젖도 안나와.” 모두 내게 절망적인 말들 뿐이었다.

하지만, 끝까지 꼭 젖을 먹일 거라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부여잡고 싶었지. 날자마자 떨어져 있어 너를 꼭 안아주지 못한 것도 죄스러운데 이렇게 아직은 나는 젖을 내 몸 귀찮다고 떨칠 수가 없었다. 너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훨씬 오래 병원에 있었고 그동안 엄마 젖도 많이 줄었지.

줄어드는 젖을 매일매일 짜내며 너를 빨리 병원에서 데려와 젖을 물리고 싶은 마음에 울고 또 울었다. 너는 한달 반만에 퇴원을 했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의 너를 안고 감사해 하고 또 감사해 했다.

상민아! 이 엄마가 네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지 아니?

그래 바로 젖을 물리는 일이었어. 그러나 너는 엄마의 기대와 달리 한달 반 동안 우유에 길들여져 엄마 젖을 먹지 않았지.

그 때 엄마가 아빠한테 한 말이 있어. 두 달 일찍 나온 것은 용서해도 젖 안먹는 것은 용서 못한다고...

너는 일주일 넘게 젖과 우유병을 오가며 투정을 부렸고 엄마는 냉동실에 얼려 둔 초유를 날짜별로 하나씩 꺼내 녹여서 우유병에 넣어 네게 먹였지.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네게 전해졌는지 너는 조금씩 우유보다 젖을 찾았다.

그 때 엄마는 어렵게 젖을 떨치지 않고 지킨 젖을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했다. 너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지금은 14개월이지만 그래도 젖먹는 젖을 가장 좋아하지.

정말 고맙다. 이 엄마는 건강하게 너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의사선생님께 감사하고, 네가 우리결에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한 오빠처럼 네게도 젖을 먹일 수 있어 너

무 행복하다.

45일간의 너의 병원생활.

가슴을 쥐어짜는 슬픔과 두려움, 그리고 너의 외로움까지도 너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이 기쁨으로 대신하련다. 앞으로 네가 자라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네가 더 많은 사랑과 더 값지고 좋은 선물을 주겠지. 허나 그 어떤 선물보다 지금 네게 준 이 엄마의 모유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.

주는 나와 받는 너,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의 선물이자 네게 꼭 주고 싶었던 이 엄마의 첫번째 선물이란다. 그리고 지금 건강한 네 모습은 모유를 먹인 결과라고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. 사랑한다.

불꺼진 한밤중에도 용케도 젖을 잘 찾아 맛있게 먹고 다시 잠이 드는 너.

엄마 냄새 잊지마.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이 엄마와 아빠가 가슴속 깊이 빌어줄게. 

